

#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의 연구 현황과 성과

최응천

동국대학교-서울,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 국/문/초/록

일본에는 우리나라 문화재가 다수 소장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시기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해방 이후인 1945년부터 1980년대까지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에 대한 연구는 일본과 국내 모두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개설서가 증대되면서 자료 보고서 형식의 논고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분야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불교회화에서 두드러진 성과가 나왔다. 조각은 일본 학자들에 의한 한국 불상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일반회화 분야에서 연구 논문 발표와 저술 활동이 국내와 일본 모두 증가하였다. 도자 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 못지않게 관련 저서가 증가된 점이 주목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국내에서 소장학자의 연구가 활발히 개시되고 신 자료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개별 논고가 많아진 시기이다. 일본의 경우 소수 연구자들의 지속적 활동이 이어지며 국내의 경우 기존 학자에 이어 독일 유학생들에 의한 연구조사가 실시되었다. 나아가 조사 지역 및 연구 범위가 확대되어 연구자의 양적 증가가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의 대외 전시가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 새로운 관심이 더욱 집중되기도 하였고 국가기관(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의 미흡하지만 처음으로 조사와 보고서 간행이 시작되었다.

2000년 초부터 현재까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심화된 연구를 바탕으로 개별 작품에 대한 미시적 접근이 점차 이루어진 시기이다. 미술사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논문 주제로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를 다룬 논문이 증가되었고, 연구가 확장되어 여러 방면에 걸친 연구 인력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일반회화, 불교회화, 소수의 불교 공예 정도를 제외하고 연구 분야 간 차별화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도자 분야는 국립문화재 연구소에 의한 본격적인 한국 문화재 보고서가 간행되어 소장처별로 체계적인 보고서가 간행된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 본 논문은 2013년 12월 13일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주최로 발표한 국제학술대회 『국외소재 문화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주제어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 연구, 문화재 연구사, 미술사학사, 한국 문화재 연구 현황, 한국 문화재 연구 성과

투고일자 : 2014. 06. 27 | 심사일자 : 2014. 07. 10 | 게재확정일자 : 2014. 08. 08



## 머리말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의 수량은 종목별 세부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4년 2월 현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의한 통계에 의하면 67,708점<sup>01</sup>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소재의 한국 문화재에 대해서는 일제 강점기 동안 반출된 문화재라는 인식 때문에 일찍부터 자료 조사의 어려움이 많았다. 그나마 일본 학자들이 그들의 손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학자들이 확인해 나가거나 빠진 것을 추가하는 정도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70년대까지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의 연구는 소규모의 자료 소개 정도에 그친 반면에 1980년에 들어와 국가 기관을 중심으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개인 연구자들도 분야별로 참가하여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중반까지 현황 파악과 자료 소개에 그쳤던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한국 연구자에 의한 조사 성과가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그러나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의 소재지나 현황 파악 못 지않게 중요한 연구 성과에 관해서는 분야별로 어떤 내용이 다루어져 왔고, 어느 정도의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945년 광복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의 연구 논문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시기별로 나누어 각 시기마다 조각, 일반회화, 불교회화, 공예, 도자기 순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sup>02</sup>

##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의 연구 현황과 성과

### 1. 1945년 이후~1980년대 중반 : 일본 내 한국 문화재의 관심 증대와 자료 소개, 한국학자들에 의한 본격적인 연구 시작

해방 이후 일본 내에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개설서 출판이 증가하였고, 자료 보고 형식의 논고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분야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되어 불교회화에서 먼저 두드러진 성과가 나온 점이 주목된다.

#### 1) 조각

조각의 경우 일본 학자들에 의한 한국 불상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였다. 구노 타케시(久野健)의 『渡來仏の旅』(日本經濟新聞社, 1981)와 모리 히사시(毛利久)의 『佛像東漸 : 朝鮮と日本の古代彫刻』(法藏館, 1983)가 대표적이다. 이어서 출간된 마츠바라 사부로(松原三郎)의 『韓国金銅仏研究』(吉川弘文館, 1985)는 한국 금동불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흑백도판과 함께 실은 논문집으로서 일본에 남아있는 한국 금동불상까지 섭렵하여 이후까지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논문에서는 마츠바라 사부로(松原三郎)와 나카기리 이사오(中吉功)의 삼국시대부터 신라에 이르는 불상 연구<sup>03</sup>가 돋보이며 1973년도에 발표된 기쿠다케 준이치(菊竹淳一)의 「対馬にのこる朝鮮系佛像彫刻 : 対馬美術調査報告の一つとして」는 일본 쓰시마(対馬島)와 잇키(壹岐)에 산재한 한국 불교조각을 정리한 조사 보고서로서 이를 다시 『佛教藝術』95(1974)에 「対馬・壹岐の朝鮮系彫刻」이란 논고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쓰시마에 전래하는 한국계 불상 75구와 잇키 소재 불상 16구를 일람표로 작성하여 삼국시대부터 조

01 세부 분류에 따른 목록은 따로 집계되지 않아 정확한 수량은 파악하기 어렵다

02 한국 문화재의 연구 현황을 분야별로 발표연대 순으로 정리한 목록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3,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3 국제학술대회-국외소재 문화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pp.43~106. 이 가운데 「부록 일본소재 한국 문화재 연구현황(분야별, 출판연도별)」, pp.65~94 참조.

03 松原三郎, 1969, 「三國時代彫刻儀式的時代區分に就て一特金銅佛を中心として」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乙西文化史; 中吉功, 1955, 「朝鮮三國時代の金銅仏」 『MUSEUM』 56, 東京国立博物館.

선시대 불상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이 지역의 불상 가운데 고려시대 불상의 착의법이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남북조 시대의 전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쿠다케 준이치(菊竹淳一)의 쓰시마 관련 연구는 계속 이어져 『対馬の美術』(西日本文化協會, 1978)이라는 책에서 「朝鮮の佛像」으로 발표되었다.

1982년에는 일본 소재 한국불상에 관련된 논고 가운데 오랜 기간 일본에 소장되고 있었지만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던 오구라 컬렉션의 한국 불상에 관한 최초의 자료 소개가 발표되어 눈길을 끈다. 아사이 카즈하루(浅井和春)가 발표한 「寄贈小倉コレクション所収 朝鮮三国時代の仏像について(小倉コレクション〈特集〉)」(『東京国立博物館研究誌』372, 1982)가 그것이다. 기쿠다케 준이치(菊竹淳一)는 다시 고려시대 불상의 신례를 소개하는 「香川・萩原寺の阿彌陀如來立像」의 논문을 『大華文化』 72(1984)에 발표하였다. 1980년 중반에는 한국에서 유학을 한 뒤 일본 규슈(九州)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오오니시 슈야(大西修也)에 의해 「対馬と渡來仏」(1984), 「百濟半跏像の系譜について」(『佛教藝術』 158, 1985), 「対馬淨林寺の銅造半跏像について」(『半跏思惟像の研究』, 吉川弘文館, 1985)와 같은 한국 관련 불상 논문이 꾸준히 발표되었다. 쓰시마의 조린지(淨林寺) 반가상은 이후 한국 학계에도 소개되어 반가상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켰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일본 소재의 한국 조각의 연구논문으로는 황수영의 「在日金銅佛像三軀」(『考古美術』 5권 8호, 1964)와 강우방의 「傳 公州出土 金銅思惟像」(『考古美術』 136·137, 1978)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강우방은 공주 출토로 전해지는 오구라 컬렉션 소장의 반가상(16.3cm)을 세부 형태와 조형성을 통해 국보 제83호 반가상과 유사하다고 보아 백제 600년경의 제작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1980년도 중반부터 대학박물관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쓰시마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져 보고서 형식의 논문들이 계속 발표되었다. 정영호의 「對馬島發見 百濟金銅半跏像」(1984), 황수영의 「對馬島の半跏像」(1985), 문명대의 「對馬

島の韓國佛像 考察」(1985), 정영호의 「學術紀行 對馬島:佛像」(『日本對馬・壹岐島綜合學術調查報告書』, 1985)와 「日本觀松院所藏 金銅半跏像:百濟金銅佛 渡日の一例」(1985)의 사례로 보아 쓰시마 연구의 붐을 이룰 정도로 많은 논문과 보고서가 이 시기에 발표되었다. 이후에도 정영호는 「日本對馬島の韓國金銅佛像 研究」(『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2, 1987)와 「日本 松田光氏所藏 金銅半跏思惟像:百濟金銅半跏思惟像 渡日の一例」(『焦雨黃壽永博士古稀紀念美術史學論叢』, 1988), 「日本 對馬島の韓國佛像 新例」(『歴史教育論集』 13·14, 1990)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쓰시마 관련 불상 소개와 연구에 매진한다. 비슷한 시기 이호관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에 소재한 불상을 조사한 후 그 내용을 「在日韓國金銅佛像調査」上·下(『東洋學』 14·15호, 1984·1985)에 간략히 소개하였다.

## 2) 일반회화

이 시기에는 일반회화 분야에서 왕성한 저술활동이 확인된다. 일본에서는 이영개(李英介)에 의한 『朝鮮古書畫總覽』(1971)이 주목되며 스즈키 케이(鈴木敬)와 마츠바라 사부로(松原三郎)가 공저한 『東洋美術史要説』 2권 中國・朝鮮編(1972)이 출간되었다. 아마토분카칸(大和文華館)에서 열린 특별전 도록으로 간행된 『朝鮮の絵画:日本にある高麗・李朝の作品』(1973)을 통해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고려·조선 회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주목을 끌었다. 특히 도쿄국립박물관(東京国立博物館)에서 열린 조선통신사전 도록 『朝鮮通信使:近世200年の日韓文化交流』(1985)는 이후 조선통신사 연구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 국내에서 일본 소재 한국 일반회화를 다룬 이동주의 『日本 속의 韓畫』(1974)에 이어 우리나라 회화사를 처음으로 종합한 『韓國繪畫史』(1980)가 출간되었다. 이후 안건의 몽유도원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안휘준의 『夢遊桃園圖』(1987)라는 한 권의 책이 엮여지기도 하였다.

일반회화 논문 역시 일본과 한국 모두 왕성하게 집필되



었다. 우선 일본에서 확인되는 한국 서화 관련 논문 가운데 다케다 츠네오(武田恒夫)의 「大願寺藏 尊海渡海日記屏風」(『佛教藝術』 52, 1963)는 다이간지(大願寺) 소장 소장팔경도 병풍의 전래경위와 그림의 내용을 간단히 언급한 논고이다. 마츠시타 다카야키(松下隆章)의 「李朝繪画と室町水墨画」(『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18, 1963), 구마가이 노부오(熊谷宣夫)의 「秀文筆墨竹画冊」(『国華』 910, 1968), 마츠시다 다카야키(松下隆章)의 「周文と朝鮮繪画, 如拙 周文 三阿陀」(『水墨美術大系』 6, 1974)은 모두 일본 무로마치 수묵화와 조선 전기 화가로 진칭되는 수문, 주문을 다룬 논고로 주목된다. 히라다 유타카(平田寛)는 「対馬・壹岐の繪画」라는 글을 『佛教藝術』 95(1974)에 발표하여 쓰시마 연구에 동참하였다. 이동주에 의해 기행문 형식으로 간행된 「紀行・日本にある韓国繪画1~12」(『日本美術工芸』, 1975), 그리고 야마노우치 초조(山内長三)의 「朝鮮繪画：近世日本繪画との關係」(『三彩』 345, 1976)가 눈에 띈다. 한편 재일(在日) 사학자인 이진희(李進熙)의 「朝鮮の画家と清見寺」(『李朝の通信使』, 1976)라는 통신사 관계의 논문은 이후 이원식(李元植)에 의해 「江戸時代における朝鮮國信使の遺墨について：墨蹟目録」(『朝鮮學報』 88, 1978)과 「朝鮮通信使の遺墨」(『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 1979) 같은 조선 통신사 회화 연구로 진척을 이룬다. 일본에서의 안전에 관한 연구도 계속 진행되어 스즈키 오사무(鈴木治)의 「安堅〈夢遊桃源圖〉について」(『ビブリア』 65, 1977)가 오랜 공백기를 지난 후 발표되었다. 아마토분카칸(大和文華館)의 학예실장으로 근무하던 요시다 히로시(吉田宏志)는 「日本の朝鮮繪画コレクション〈泗川子コレクション〉の公開に際して」(『日本美術工芸』 526, 1982), 「我が国に伝来した李朝水墨画をめぐって：李朝の水墨畫」(『水墨美術大系』, 1977), 「李朝の繪画-その中国受容の一局」(『古美術』 52, 1977), 「李朝の画員金明国について」(『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35, 1977) 등 일본 소재 한국화

를 소개하거나 조선시대 회화에 관한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1979년에는 조선통신사에 관련된 「朝鮮通信使の繪画：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1979)에 관한 논고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일본어로 번역되어 발표된 안휘준의 「高麗及び李朝初期における中国画の流入」(『大和文華』 62, 1977)과 「朝鮮王朝初期の繪画と日本室町時代の水墨画：李朝の水墨画」(『水墨美術大系』 2, 1977)는 일본 속에서 한국 회화가 지닌 가치와 의미를 더욱 부각시켜준 논고로서 의미가 크다.

국내에서 발표된 일본 소재 회화에 관한 논문으로는 이동주의 「安堅의 夢遊桃源圖」(『日本속의 韓畫』, 1974)가 있으며 안전과 조선 전기 회화 연구는 주로 안휘준에 의해 꾸준히 이루어지고 발표되었다.<sup>04</sup>

### 3) 불교회화

이 시기의 불교회화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말부터 일본 소재의 한국 불화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다른 어느 분야보다 많은 저술과 논문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일본에서의 저서로는 1967년에 발표한 구마가이 노부오(熊谷宣夫)의 「朝鮮佛畫徵」(『朝鮮學報』 44)을 시작으로 1973년 오카야마현립박물관(岡山県立博物館), 1974년 규슈역사자료관(九州歴史資料館)에서 개최된 조선불화전과 이어서 1978년에 나라의 아마토분카칸(大和文華館)에서 고려불화의 특별전을 열게 되면서 『高麗仏画：わが国に請来された隣国の金色の仏たち』(大和文華館, 1978)가 간행되었다. 이 도록과 전시는 고려 불화의 우수성을 처음으로 알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81년에 논고와 도판이 검비된 『高麗仏画』(菊竹淳一·吉田宏志 감수, 朝日新聞社)가 출간되었다. 국내에서도 이동주의 「高麗 阿彌陀佛」(『日本 속의 韓畫』, 1974)와 이동주 감수의 『高麗佛畫』(韓國

04 안휘준, 1974. 「안전과 그의 화풍-‘몽유도원도’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38. 진단학회; 1974. 「俗傳 安堅筆 ‘赤壁圖’ 연구」, 『홍익미술』 3; 1976. 「안堅의 생애와 작품」, 『讀書生活』 9.三省出版社; 1976. 「朝鮮王朝初期의 繪畫와 日本室町時代の 水墨畫」, 『韓國學報』 3. 한국학회.

의 美 제 7권, 1981)는 한국에서 최초로 원색도판과 함께 고려불화를 다룬 개설서로서 의미가 크다. 또한 1986년에 간행된 김영주의 『조선시대의 불화 연구』(지식산업사, 1986)는 조선시대 불화를 도상별로 분류하여 서술하면서 해외에 흩어져 있는 작품들도 일부 포함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불화 논문은 대부분이 일본 소재의 고려불화나 조선불화를 다루고 있어 전부를 언급하기 어려워 이 부분은 국외소재 문화재단 발표문에 인용된 부록 불교회화 목록<sup>05</sup>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러나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 논문 가운데 하나가 마츠모토 에이치(松本榮一)의 「高麗時代の五百羅漢圖」(『美術研究』 175, 1954)와 구마가이 노부오(熊谷宣夫)의 「朝鮮佛畫徵」(『朝鮮學報』 44, 1967)으로서 고려불화와 조선불화 연구에 있어 반드시 읽고 숙지하는 한국 불화 연구의 텍스트로 평가받는다. 구마가이 노부오(熊谷宣夫)는 이후에도 「善導寺藏地藏菩薩画像」(『美術研究』 263, 1969), 「九州所在大陸傳來の仏画」(『佛教藝術』 76, 1970)와 같은 일본 소재 한국 불화의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히라다 유타카(平田寛)는 「鏡神社所藏楊柳觀音画像」(『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年報』, 1968)을 필두로 하여 「九州の朝鮮仏画」(『西日本文化』 100, 1974) 등 규슈(九州) 지방에 산재한 한국 불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권희경(權熹耕)이 발표한 「至元六年銘紺紙金字法華經について」(『佛教藝術』 113, 1977)는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고려 사경을 대상으로 쓴 일어 논문으로 주목된다. 이는 다시 하야시 스스무(林進)에 의해 「高麗時代の裝飾經」(『高麗仏画』, 1981)으로 다루어진다. 하야시 스스무(林進)의 「高麗時代の水月觀音圖について」(『美術史』 102, 1977)란 논문 역시 고려 수월관음도 연구에 있어 중요

한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요시다 히로시(吉田宏志)는 「志元23年銘高麗阿彌陀如來像をめぐる」(『月刊文化財』 186, 1979)에서 고려불화를 소개하였고, 이어서 「高麗仏画の紀年作品」(『高麗仏画』, 1981)에서 그 동안의 자료를 섭렵하여 정리함으로써 고려불화 연구에 일조하였다.

이후 마에다 칸(前田幹)의 「中国四国地方の朝鮮仏画」(『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50, 1981)는 규슈(九州) 지방 외에 중국(中国), 시코쿠(四国)에 소장된 조선불화를 정리한 논고로서 의미가 깊다. 1985년에는 히라다 교수 밑에서 수학한 이데 세이노스케(井手誠之輔)가 처음으로 「阿彌陀三尊來迎図」(『國華』 1087, 1985)라는 논고를 발표하면서 불화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1980년 초부터 문명대,<sup>06</sup> 유마리,<sup>07</sup> 홍윤식,<sup>08</sup> 김정희<sup>09</sup>가 고려불화를 비롯한 일본 소재 한국불화에 대한 논고를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영국에서 활동하는 박영숙에 의해 「高麗時代 地藏菩薩像에 보이는 몇 가지 問題點」(『考古美術』 157호, 1983)과 같은 고려불화 논문이 발표되는 등 국내·외에서 고려불화 연구가 부지런히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김종태의 「高麗五百羅漢像考」(『空間』 205호, 1984)는 소략하지만 고려 오백나한도를 다룬 논고로서 눈길을 끈다.

#### 4) 공예

공예는 발표된 논문 수에 비해 조사 연구자가 극히 적은 현상을 보여준다. 일본에서 이 시기 공예품과 민예품을 다룬 책으로는 하마구치 료코(浜口良光)의 『朝鮮の工芸』(1966)와 오카모토 타로(岡本太郎)·하마구치 료코(浜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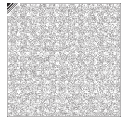
05 최응천, 2013. 「부록 일본소재 한국 문화재 연구현황(분야별, 출판연도별)」, 국외소재문화재단 2013 국제학술대회-국외소재 문화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국외소재문화재단, pp.65~94.

06 문명대, 1981. 「高麗佛畫의 造成 背景과 内容」, 『高麗佛畫』 韓國의 美 7, 中央日報社 및 1981. 「高麗 觀經變像圖의 研究」, 『佛教美術』 제6호, 東國大學校博物館.

07 柳麻里, 1981. 「高麗 阿彌陀佛畫의 研究:坐像을 중심으로」, 『佛教美術』 제6호, 東國大學校博物館.

08 홍윤식, 1983. 「일본 知恩院 소장 〈관음32응신도〉: 불화와 산수화가 만나는 선조명품」, 『계간미술』 25 및 1986. 「朝鮮初期 知恩院所藏五百羅漢圖와 그 山水畫의 要素」, 『考古美術』 169·170호, 韓國美術史學會.

09 金廷禧, 1983. 「高麗末·朝鮮前期 地藏菩薩畫의 研究」, 『考古美術』 157호, 韓國美術史學會 및 1986. 「朝鮮朝 明宗代의 佛畫研究 - 淸平寺藏十王圖를 中心으로」, 『歷史學報』 110호, 역사학회.



良光)·조자용(趙子庸) 세 사람이 공저한 『李朝の美-民芸』(1973) 정도뿐이다. 1974년에는 일본 소재의 한국 범종과 금고(金鼓) 등 오랜 기간 조사를 통해 많은 수의 논문을 발표한 츠보이 료헤이(坪井良平)의 역저 『朝鮮鐘』(角川書店, 1974)이 간행된다. 츠보이 료헤이(坪井良平)의 이 책은 일본에 소재한 한국 범종을 총망라하여 탁본과 실측도면까지 실은 그동안의 모든 연구가 귀결된 완결판으로, 이후 소재지를 비롯한 크기 등이 잘 나타나 일본 소재 범종 연구에 교본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불상과 함께 쓰시마의 고려 금고와 후코지(普光寺) 금고 등이 일부 소개된 『對馬の美術』(1978)이 간행되었고 가와다 사다무(河田貞)는 다카하시 다카히로(高橋隆博)와 함께 『高麗李朝の螺鈿』(1986)을 펴냈다. 국내에서 공예와 관련된 저서로는 황수영의 『金石遺文』(1985)이 발간되어 일본에 소재한 범종, 향완, 金鼓, 사리기 등의 명문을 충실히 실고 있어 참고가 된다.

일본에서 발표된 공예 관련 연구논문의 경우 적은 양이 아니지만 대체로 츠보이 료헤이(坪井良平)의 논문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의 「高麗鐘の銘文」(『朝鮮學報』 14, 1959)이란 선구적 논문 이후 츠보이 료헤이(坪井良平)는 1960년에 「朝鮮鐘の資料補遺」(『朝鮮學報』 16, 1960)를 시작으로 「九州の朝鮮鐘」(『佛教藝術』 76號, 1970), 「日本にある朝鮮鐘」(『日本文化と朝鮮』 第2集, 1985)에 이르기까지 22편에 이르는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였다. 특히 1974년에 발표된 「朝鮮金鼓について」(『佛教藝術』 98, 1974)는 일본 소재 한국 금고를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논고로서 의미가 깊다. 1974년에 발표된 오카자키 죠지(岡崎譲治)의 「對馬・壹岐の金工品」(『佛教藝術』 95, 1974)은 기존에 알려진 쓰시마, 잇키에 있는 한국 불교 조각에 대한 내용과 별도로 금속공예품을 새롭게 부각시켜 소개한 글이다. 한편 일본에서 발표된 김정주(金正柱)의 「日光東照宮の朝鮮鐘」(1962)은 닛코토쇼구(日光東照宮)에 있는 조선시대 범종을 다룬 최초의 한국인 논문인 점에 주목을 끈다.

국내 논문의 경우 서울대 공대 교수였던 염영하(廉永夏)에 의해 순차적으로 일본에 소재한 고려 종을 소개한 「在日 高麗鐘」(1)·(2)·(3)(『梵鐘』 8·9·10, 1985~87)의 논문이 발표되었다.<sup>10</sup>

## 5) 도자

이 시기 도자의 연구 현황은 다른 어느 분야 못지않게 도자 관련 저서가 증가된 점이 두드러진다. 아사카와 노리타카(淺川伯教)의 『李朝の陶磁』(1956)에서부터 이토 이쿠타로(伊藤郁太郎)의 『李朝白磁抄選』(1984)에 이르는 14권 정도의 도자 개설서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간되었다. 그 가운데 최순우와 하세베 가쿠지(長谷部楽爾), 하야시야 세이조(林屋晴三)가 공저한 『高麗李朝の陶磁』(1974)는 한·일 연구자가 모여 만든 일본에서의 한국도자 관계의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논문으로는 일본에서 발표된 오야마 노리오(大山教男)의 「松岡美術館の高麗青磁: 単色図版解説」(『陶説』 316, 1979)와 長谷部楽爾의 「小倉コレクションの高麗・李朝陶磁」(『東京国立博物館研究誌』 373, 1982), 다마무시 도시코(玉虫敏子)의 「初公開 朝鮮のやきもの展: 表紙口絵解説」(『陶説』 375, 1984)의 3편 모두 일본 소재의 한국 도자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하세베 가쿠지(長谷部楽爾)의 「小倉コレクションの高麗・李朝陶磁」 논고는 오구라 컬렉션의 도자기를 깊이 있게 고찰한 최초의 내용으로 중요하다.

## 2. 1980년대 후반~1990년대 말 : 분야별 연구의 확산과 현지 조사의 확대, 유학을 통한 전문 연구자의 배출

이 시기는 국내에서 소장학자의 연구가 활발히 개시되어 신 자료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개별 논고가 많아졌다. 특히

10 이러한 연구 성과는 이후 『韓國의 鐘』(서울대학교 출판부, 1991)이라는 책으로 다시 출판되었다.

국내의 경우 기존학자에 이어 독일 유학생들에 의한 연구조사가 실시되고, 조사 지역과 연구범위가 확대되며, 연구자의 양적 증가가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소수 연구자들의 지속적 활동이 엿보인다.

## 1) 조각

조각 분야의 연구서는 드물지만 도쿄국립박물관(東京国立博物館)에서 열린 금동불전(金銅仏展)의 전시 도록인 『金銅仏：中国・朝鮮・日本』(東京国立博物館, 1987)이 대표적이다. 논문으로는 미즈모리 마사시(光森正士)의 「仏像の流伝-日韓の古代誕生仏の諸相」(『大和文華』 76, 1986)과 일본 소재 한국 불상 및 불화 연구를 진행하던 기쿠다케 준이치(菊竹淳一)에 의해 「高麗時代觀音像の表現」(『東アジアの考古学と古学と歴史』 上, 1987), 「高麗仏考：西日本に博存す作品による」(『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33, 1988)가 계속적으로 발표되었다. 오키타 마사아키(置田雅昭)의 「新羅・高麗の仏教美術」(『高麗美術館開館記念図録』, 1988)은 고도고려미술관이 소장한 한국 불상을 다룬 글로 주목된다. 이후가와카미 히로시(河上洋)의 「渤海の東京と二佛竝座像」(『仏教史学研究』 35, 1992)은 일본에 소재한 발해 불상을 주목하여 다룬 최초의 논고로서 중요하게 평가된다. 1997년에는 야마구치현립미술관(山口県立美術館)에서 개최된 고려·조선 불교미술전시 도록에 발표된 이와이 토모지(岩井共二)의 「高麗後期の如来・菩薩の服制について：僧祇支の形式を中心として」(『高麗・朝鮮の仏教美術展』, 1997)의 논고는 일본 소재 고려 후기 불상의 승각기를 중심으로 고찰한 글이다. 광동석은 나라국립박물관(奈良国立博物館)에서 간행된 「小倉蒐集韓国金銅仏再考：制作技法を中心に」(『日・韓両国に所在する韓国仏教美術の共同調査研究』, 1993)에서 오구라 컬렉션 한국 금동불의 제작기법을 고찰하였다. 또한 나이토 고지(内藤浩之)에 의해 발표된 「高麗時代菩薩形像の形式研究-日本に伝わる作例を中心に-」(『鹿島美術研究』 年報第15号, 1998)는 쓰시마 관음사 보살좌상(觀音寺 菩薩坐像)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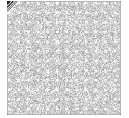
일본에 전하는 보살상 8구에 대해 세부 특징을 한국 내의 다른 상들과 비교 고찰한 짧은 심도 있는 논문으로 주목된다.

국내 논문으로는 정영호에 의해 앞 시기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온 쓰시마 관련 「日本對馬島の韓國佛像 新例」(『歴史教育論集』 13・14, 1990)와 이를 종합한 「日本 佛像에 보이는 韓國文化의 影響」(『美術史學研究』 185, 1990)이 발표되었다. 한편 그동안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 현황을 다룬 김영애의 「在日 韓國佛像의 研究現況-일본 속의 한국불교미술」(『講座美術史』 4, 1992)은 그때까지 확인된 일본 소재 불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주목되는 성과로 꼽힌다. 1997년부터 최웅천은 『博物館新聞』에 연재한 「日本 속의 韓國文化財」 중에서 일본 소재 한국 불상에 대한 사진과 양식 특징을 자료로 소개하였다.

## 2) 일반회화

일반회화 분야에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韓國國際交流財團)에서 1995년에 『日本所藏 韓國文化財』 2, 1997년에 『日本所藏 韓國文化財』 3, 1998년에 『日本所藏 韓國文化財』 5를 순차적으로 간행하였는데, 국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조사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영성한 사진과 부실한 설명 등 도판 자료로도 거의 활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 시기 일본에서 발표된 논문 가운데 일본 소재 한국회화를 다룬 것으로는 김정교(金貞教)의 「大和文華館藏煙寺暮鐘圖について」(『大和文華』 79, 1988)와 요시다 히로시(吉田宏志)의 고려미술관 소장의 서화를 개설한 「朝鮮繪画の特色と高麗美術館の書画コレクション」(『高麗美術館開館記念図録』, 1988), 그리고 다케다 츠네오(武田恒夫)의 「贈朝鮮国王屏風について」(『日本美術工芸』 639, 1991) 정도가 확인된다. 또한 요시다 히로시(吉田宏志)는 그동안의 조사된 자료를 종합해 「日本所在李朝繪画目録」(『大和文華』 93, 1995)을 펴냄으로써 일본 소재 한국 회화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안건에 대한 연구도 계속 이어져 노재옥(盧載玉)의 「安堅筆《夢遊桃源圖》についての一考察」(『美學』 48,



1997)이란 논문과 요시다 히로시(吉田宏志)는 「朝鮮時代の 絵画:安堅以降の展開」(『世界美術大全集東洋編 11: 朝鮮王朝編』, 1999)에서 다시 조선시대 회화에서 안견화풍의 영향을 다루었다. 오랜 기간 한·일 교류 관련 논문이 뜸하던 중 홍선표에 의해 「통신사 수행회원의 파견과 역할」(『미술사학 연구』 205, 1995), 「조선 후기 한·일 간 화적 교류」(『미술사 연구』 11, 1997)에 이어 「조선 후기 통신사 수행회원의 회화 활동」(『美術史論壇』 6, 1998), 「朝鮮後期 한일 회화교류와 相互認識: 通信使行을 중심으로」(『국립대학교박물관 학예 연구』 2, 2001)에 이르기까지 한·일 관계 가운데서도 통신사 관련 논문을 집중적으로 발표하였다. 한편 양보경의 「일본 大阪府立圖書館 소장 《朝鮮圖》의 고찰」(『서지학연구』 17, 1999)은 서지학회에서 발표된 일본 소재 고지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참고가 된다.

### 3) 불교회화

불교회화 분야는 아마토분카칸(大和文華館)에서의 성공적인 고려불화 전시에 자극을 받아 국내에서도 호암갤러리에서 『高麗, 영원한 미: 高麗佛畫特別展』(1993)과 『大高麗國寶展: 위대한 문화유산을 찾아서』(1995)의 전시가 연이어 개최됨으로써 고려불화의 우수성을 국내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시기 일본에서의 저술로는 정우택의 『高麗時代阿彌陀畫像の研究』(京都永田文昌堂, 1990)와 국내에서 1996년도에 발간된 『高麗時代の 佛畫』(시공사, 1996)의 일본어판인 기쿠다케 준이치(菊竹淳一)·정우택 共著, 『高麗時代の 仏画』(時空社, 2000)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야마구치현립미술관(山口県立美術館)에서 간행된 『高

麗·李朝の 仏教美術展』의 전시도록에 여러 편의 관련 논고가 수록되었다. 국내에서도 이같은 고려불화 열기를 반영하듯 교양서 성격을 지닌 문명대의 『高麗佛畫』(悅話堂, 1991)가 출간되었다. 아울러 1993년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海外所在 韓國文化財 目録』을 통해 일본 소재 불화목록을 작성하였고 1996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교토와 나라를 중심으로 조사한 『일본 소재 한국 불화 도록(교토·나라)』를 발간하였으나 충실한 사진을 확보하지 못한 때문인지 사진 상태가 많이 떨어져 아쉬움이 남는다.

불교회화의 논문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활약이 두드러져 확인된 논문 편수만 보더라도 일본학자 논문 31편, 일본 내의 한국학자 논문 17편과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이 38편을 헤아린다. 이 시기 논문의 전체적인 성격을 개관해 보면 우선 일본 논문의 경우 고려시대 관음도가 아직까지 가장 많은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이데 세이노스케(井手誠之輔)와 정우택에 의한 고려 아미타불화 연구<sup>11</sup> 외에 지장시왕도,<sup>12</sup> 열반도,<sup>13</sup> 관경변상도<sup>14</sup>와 같이 존상별 불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개별의 작품 분석을 통한 연구 방법도 집중<sup>15</sup>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시기 한·일 연구자가 공동으로 집필한 기쿠다케 준이치(菊竹淳一)·이데 세이노스케(井手誠之輔)·박은경의 「高麗時代 仏教 絵画 の 総合的研究」(『清丘學術論集』 4, 1994)는 주목되는 연구 성과이다. 또한 고려 불화에 이은 일본 소재의 조선불화 연구가 조금씩 진전을 보이기 시작하여 다케다 가즈아키(武田和昭),<sup>16</sup> 요시다 히로시(吉田宏志),<sup>17</sup> 아마모토 다이이치(山本泰一),<sup>18</sup> 기쿠다케 준이치(菊竹淳一)<sup>19</sup>에 의해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그 다음 시기에 많은 수의 조선불화를 소개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국내 논문의 경우 앞 시기에 이은 고려불화의 연구가 계

11 井手誠之輔·鄭于澤, 1991, 「高麗時代の阿彌陀画像の研究」, 『デアルテ』 7, 九州芸術学会.

12 中野照男, 1993, 「高麗時代の地藏十王図」, 『美術研究』 396, 東京文化財研究所.

13 井手誠之輔, 1990, 「香川極楽寺所蔵 仏涅槃図」, 『The journal of art studies』 346, 国立文化財機構東京文化財研究所.

14 河原由雄, 1993, 「浄土曼荼羅から迎攝図へ—高麗·李朝觀經變相図の展開—」, 『日韓兩國に所在する韓国仏教の美術共同調査研究』, 奈良国立博物館.

15 鄭于澤, 1987, 「筑前善導寺の地藏菩薩図」, 『美術史』 122, 美術史学会; 1988, 「日本銀行蔵(東京国立博物館寄託)の阿彌陀如来図」, 『MUSEUM』 435, 国立東京博物館.

16 武田和昭, 1991, 「李朝時代前期の密教画」, 『密教圖像』 9, 密教圖像學會.

17 吉田宏志, 1993, 「文祿·慶長の役と朝鮮仏画」, 『李刊青丘』 15, 青丘文化社.

18 本泰一, 1998, 「新出の年紀銘のある李朝仏画」, 『金毓叢書』 25, 徳川黎明會; 1999, 「北斗信息仰の李朝仏画」, 『金毓叢書』 26, 徳川黎明會.

19 菊竹淳一, 1999, 「朝鮮王朝 仏教美術論」, 『世界美術大全集 東洋編 11: 朝鮮王朝』, 小學館.



속 이루어지면서 이은희, 문명대, 김정희에 의해 사경변상도, 관경변상도, 지장보살도와 같은 분야별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정우택은 일본에서 친착한 고려불화의 내용을 정리하여 한국에서 꾸준히 논문을 발표하였고, 90년대 후반부터 조선 전기의 불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여 박은경에 의해 일본 소재 조선전기 불화<sup>20</sup>가 소개되었다. 한편 1990년 정우택의 「日本에 있어서의 韓國 佛教美術의 研究傾向-佛教繪畫를 중심으로」(『東洋學簡報』 10호, 1990)와 1992년에 박도화에 의해 발표된 「재일 한국불화의 현황과 연구과제」(『강좌미술사』 4, 1992)는 당시까지의 일본 내에서의 한국 불화 연구의 현황을 정리해본 논고로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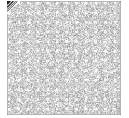
#### 4) 공예

공예 분야에서는 한국 중 관련 간행물로 아마기시(甘木市) 지하에서 발견된 고려 범종 보고서인 『朝鮮鐘: 福岡県甘木市秋月城跡出土の朝鮮鐘調査報告』(甘木市教育委員会, 1991)가 눈에 띈다. 특히 나라문화재연구소(奈良文化財研究所)에서 펴낸 『梵鐘実測図集成』(1993)은 일본 소재 한국 범종의 실측도를 집성하여 책으로 엮은 중요한 자료집이다. 한편 직업이 의사인 강건영(姜健榮)은 일본 소재의 한국 범종을 찾아다니며 『梵鐘をたずねて-新羅・高麗・李朝の鐘』(1999)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흥미롭다. 국내 저서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오가와 케이키치 조사 문화재 자료(小川敬吉調査文化財資料)』(1994)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두 번째 일본 조사 목록인 『日本所在文化財圖録』(1995)이 간행되어 국립기관에 의한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졌다.

일본 측 논문으로는 츠보이 료헤이(坪井良平)의 연구가 계속 이어져 「日本における朝鮮鐘の影響」(『新羅・高麗美

術』, 1986)과 일본에 있는 한국 금고를 다룬 「日本にある朝鮮金鼓」(『日本文化と朝鮮』 第3集, 1988)가 있으며, 이시다 하지메(石田肇)의 「園城寺朝鮮鐘と崇福寺鐘銘-町田久成黎庶昌」(『史迹と美術』 58, 1988)은 1032년의 명문을 지닌 일본 엔조지(園城寺) 소장 고려 범종을 다룬 논문이다. 이어서 하마다 고우사쿠(浜田耕策)는 「新羅鐘銘の再検討-1-敦賀市・常宮神社所蔵の「鐘の記」と靑州蓮池寺鐘」(『史淵』 129, 1992)에서 833년에 조성된 일본 조구진사(常宮神社)에 소장된 통일신라 종의 명문을 분석한 글로서 중요하게 평가된다. 가와다 사다무(河田貞)의 「高麗時代の螺鈿経菴」(『日韓兩國に所在する韓国仏教美術の共同調査研究』, 奈良国立博物館, 1993)은 고려시대 나전 경상을 소개한 글이다. 같은 보고서에 실린 최응천의 「日本所在の韓國梵鐘: 特に統一新羅梵鐘を中心として」(『日韓兩國に所在する韓国仏教美術の共同調査研究』, 奈良国立博物館, 1993)는 일본에 소재한 통일신라 범종을 조사하고 그 양식적 특징과 의의, 일본 소재 한국 범종을 목록으로 정리한 논고로서 현지 조사를 통한 충실한 사진이 실려 있어 범종 연구에 참고가 된다. 일본에서도 90년대 중반 일본고종연구회(日本古鐘研究会)가 창립되어 『梵鐘』이라는 학술지를 발행하게 되어 한국 관련 범종 논고가 주로 실리게 된다. 가타야마 기요시(片山清)의 「正傳永源院朝鮮鐘 歴考」上・下(『事迹と美術』 644・645, 1994)는 교토 정傳永源院에 소장된 고려 범종을 고찰한 글이다. 이후 하마다 고사쿠(濱田耕策)에 의해 발표된 「朝鮮鐘研究の諸問題」(『梵鐘』 6, 1997)는 평소 한국 범종의 명문을 주로 연구한濱田의 한국종 명문을 분석한 글로서 의미가 깊다. 이 시기 한국 측 논저로 중요한 것이 염영하의 「韓國梵鐘目錄」(『梵鐘』 11, 1988)으로 우리나라 중 뿐 아니라 일본 소재의 한국종의 크기와 소장처를 총괄한 종합 목록집이란 점에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최응천은 「在日 韓國鐘의 新例」(『梵鐘』 11, 1988)에서 일본 아마기시(甘木市)에서 출토된 고려 범종을

20 朴銀卿. 1996. 「朝鮮前期 線描佛畫-純金畫」 『美術史學研究』 제206호. 한국미술사학회; 1998. 「조선 전기의 기념비적인 사방사불화 -일본 寶壽院 소장 〈약삼존도〉를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7. 한국미술연구소.



소개하고 그 시기를 11세기 전반으로 추정하였다. 다시 최  
응천은 일본에서 조사한 범종을 「日本에 있는 韓國文化財」  
(1)~(28)란 제목으로 『博物館新聞』(1991~2001)에 연재하여  
소개하였고 이러한 연구 성과를 모아 「日本에 있는 韓國梵鐘  
-九州소장 梵鐘-」(『講座美術史』 4호, 1993)에 일본 규슈 지방  
한국 범종의 특징과 편년을 고찰하였다.

## 5) 도자

도자 분야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조사한 『日本所藏 韓  
國文化財』 1(1993), 『日本所藏 韓國文化財』 2(1995), 『日本  
所藏 韓國文化財』 3(1997), 『日本所藏 韓國文化財』 5(1998)  
가 발간되었으나 대부분 목록집 수준의 보고서에서 벗어나  
지 못하였다.

일본 쪽 논문으로는 니시타니 다다시(西谷正)의 「日本  
出土の朝鮮陶磁:高麗青磁を中心として」(『東洋陶磁』 22,  
1992)와 이마이 아즈시(今井敦)의 「海を渡った高麗青磁(日  
本出土の舶載陶磁〈特集〉)」(『東京国立博物館研究誌』 503,  
1993), 이토 요시아키(伊藤嘉章)의 「東京国立博物館特別展  
観:日本出土の舶載陶磁:朝鮮・ベトナム・タイ・イスラム」  
(『月刊文化財』 352, 1993)는 일본에서 출토된 무역도자 성  
격을 지닌 고려청자를 다룬 논고이다. 이수혜(李須惠)의 「高  
麗美術館の藏品より:高麗・李朝のやきもの」(『陶説』 545,  
1998)는 고려미술관 소장의 고려와 조선자기를 소개한 논고  
이며 이토 이쿠타로(伊藤郁太郎)의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  
館 李秉昌コレクションの韓国陶磁」(『茶道雑誌』 63, 1999)  
도 오사카 동양도자미술관에 기증된 이병창 컬렉션의 한국  
도자기를 소개한 논고로서 중요하다.

## 3. 2000년 이후~현재 : 종합적인 연구 범위의 확산과 연구 인력의 배출, 연구 분야 간 차별화 현상

이 시기는 일본 소재의 불교회화의 경우 연이어 발견되는

작품들을 신 자료로 소개하거나 연구한 논고로 전문 학술지  
에 게재되었다. 또한 90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심화되어 개별  
작품에 대한 미시적 접근이 점차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미술사학자가 있는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논문의 주제로 일  
본 소재 한국 문화재 연구가 확대되기 시작하여 여러 방면에  
걸친 연구 인력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일반회화와 불교회화,  
그리고 소수이지만 불교공예 정도를 제외하고 연구 분야 간  
차별화 현상이 심화되어 조각과 도자의 경우 그다지 주목되  
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1) 조각

조각 분야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 컬렉션 한국 문화재』(2005)가 주목되는데, 국립  
기관에서 조사하여 발행한 오구라 컬렉션의 종합 보고서로서  
매우 의미가 깊다. 또한 오랜 기간 일본 조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충실한 사진과 논고를 실은 박은경·정은우 공저의 『西  
日本 지역 한국의 불상과 불화』(민족문화, 2008)는 이 시기 대  
표적인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에 대한 연구 저서로 꼽을 수 있  
다. 일본 쪽 논문은 특별한 것이 파악되지 않지만 교토 고려  
미술관 소장의 조선시대 불감을 고찰한 최선일의 「高麗美術  
館所藏 朝鮮時代後期木造三尊仏龕」(『高麗美術館研究紀要』  
3, 2002)정도가 확인될 뿐이다. 국내 논문으로는 정은우의 활  
약이 돋보여 「高麗後期 普明寺 金銅菩薩坐像과 倭寇와의 관  
계」(『美術史學』 19, 2005), 「對馬島 圓通寺의 金銅藥師如來坐  
佛 考察」(『東岳美術史學』 7, 2006), 「西日本地域の 高麗佛像  
과 浮石寺 銅造觀音菩薩坐像」(『東岳美術史學』 14, 2013)에서  
일본 소재 고려 불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한  
국에 유학하였던 오자와 신(大澤 信)은 일본 학회에서 발표된  
쓰시마 지장보살상을 다시 정리하여 「고려시대 被帽地藏 道  
상의 수용문제 -대마도 전래 금동지장보살유회좌상의 위상-」  
(『제56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논문집』, 2013)에 실었다. 특히  
지금까지의 지장상의 제작시기를 14세기로 본 견해와 달리  
고려 전기로 올려서 편년한 점이 주목된다.

## 2) 일반회화

일반회화의 경우 그나마 많은 수의 저술이 확인되어 이 타쿠라 마사야키(板倉聖哲)·홍선표(洪善杓)·정우택(鄭于沢)이 공동으로 엮은 『朝鮮王朝の絵画と日本：宗達 大雅、若冲も学んだ隣国の美』(読売新聞大阪本社, 2008)는 이 시기 한·일 회화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룬 의미 있는 전시 도록이다. 국내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펴낸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 켈렉션 한국 문화재』(2005)의 회화 관련 자료, 홍선표의 『동아시아 미술의 근대와 근대성』(학고재, 2009), 한정희의 『동아시아 회화 교류사』(사회평론, 2012) 정도가 대표적이다.

일본에서는 미야마 료(三山陵)의 「高麗美術館所蔵品〈李朝民画〉のなかの発見：中国版画について」(『高麗美術館館報』 49, 2001), 요시다 히로시(吉田宏志)의 「安堅筆〈夢遊桃源図〉をめぐって：朝鮮王朝の夢遊郷観を中心に」(科研「朝鮮儒林文化の形成と展開に関する総合的研究」報告書, 2003)과 최석익(崔碩義)의 「韓国美術史研究ノート 画人安堅の〈夢遊桃源図〉」(『アプロ』 21, 76, 2004), 미우라 구니오(三浦國雄)의 「安堅〈夢遊桃源図〉と〈桃花源記〉」(『国学院中国学会報』 53, 2007)를 비롯하여 이가라시 코이치(五十嵐公一)의 「江戸時代の朝鮮書画情報(特集 朝鮮王朝の絵画：東アジアの視点から)-(絵画からみた朝鮮と日本)」(『アジア遊学』 120, 2009) 등의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국내 논문의 경우에도 일본 못지않은 왕성한 활동이 이어졌다. 특히 홍선표의 연구가 두드러지는데, 그는 「朝鮮後期 한일 회화교류와 相互認識：通信使行을 중심으로」(『국민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 2, 2001)와 같은 조선 통신사 관계 논문<sup>21</sup>을 위주로 한·일 회화의 교류 관계<sup>22</sup>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후에는 일본 소재 한국회화의 자료 소개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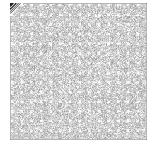
진력하여 「지은인(慈恩院)의 조선서화」(『쇼코쿠지 지은인 소장 조선통신사 유물도록』, 2008)을 비롯한 「조선 전기의 契會圖 유형과 해외소재 작품들」(『美術史論壇』 36, 2013), 「日本에 있는 朝鮮 繪畫의 전래 및 존재 유형과 사례」(『동양 미술사학』 14, 2013) 등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한편 김선화의 「朝鮮通信士를 통한 회화의 한일 교류-17~18세기를 중심으로-」(『2001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제2차 국제학술대회』, 2001)와 박은순의 「謙齋 鄭叡과 이케노 타이가(池大雅)의 眞景山水畫 比較研究」(『미술사연구』 17, 2003), 김동철의 「倭館圖를 그린 卜璞의 대일 교류 활동과 작품들」(『한일관계사 연구』 19, 2003) 같이 한·일 회화 교류사에 관한 논문이 계속 이어졌다. 이후에도 정은주의 「正徳元年(1711) 조선통신사행렬회권 연구」(『미술사논단』 23호, 2006)와 차미애의 「江戸時代 通信使登城行列圖」(『미술사연구』 20호, 2006)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통신사 관련 회화 연구가 집중되고 있음이 파악된다. 이 밖에 박성희의 「18·19세기 동래 왜관 수출 회화의 제작과 유통」(『미술사논단』 31, 2010), 박은순의 「19세기 「朝鮮書畫傳」을 통해 본 韓日 繪畫交流」(『미술사학연구』 273, 2012) 등 역시 한·일 회화 교류에 관련된 주목되는 논문이며 이원복의 「杜域令 李巖의 翎毛畫-犬圖와 鷹圖를 중심으로」(『고고학지』 17, 2011)와 홍선표의 「조선후기 한일 회화교역의 허브, 동래」(『〈동래부접왜사도〉 국제심포지엄발표문』, 2013)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연구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20세기 이후의 연구 경향은 전 시기부터 이어져 온 통신사 관련 회화 연구 및 한·일 회화 교섭과 같은 교류사 연구에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3) 불교회화

불교회화 분야에서 일본에서 출간된 강건영(姜健榮)의

21 홍선표, 2005, 「에도[江戸]시대의 조선화 열기 : 일본 통신사행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원논총』 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2 홍선표, 2007, 「조선후기 한일회화교류의 관계성」 『조선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李朝の美：仏画と梵鐘』(2001)과 『高麗仏画』(アジアニュースセンター, 2002)는 전문서적이거나 여행기에 가까우며 오타니(大谷)대학과 동국대박물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전시도록인 『祈りと造形：韓国仏教美術の名品』(大谷大学博物館, 2009)에는 상당수의 일본 소재 고려불화가 게재되어 관심을 끌었다.

국내에서는 박은경에 의한 『조선전기 불화연구』(시공아트, 2008)가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꼽힌다. 이 외에 국내·외 사경변상도를 모아 공개한 전시 도록 『사경변상도의 세계, 부처 그리고 마음』(국립중앙박물관, 2007)에 일본 소재의 사경을 대부분 수록한 충실한 자료집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강소연의 『잃어버린 문화유산을 찾아서』(부엔리브로, 2007)와 박은경의 『조선전기 佛畫研究』(시공아트, 2008), 박은경·정은우의 『西日本 지역 한국의 불상과 불화』(민족문화, 2008)에서 일본 소재의 고려 및 조선 전기 불화들을 풍부한 도판과 해설을 함께 실어 출간하여 좋은 성과를 내었다. 또한 2010년에 국내 전시로는 가장 대규모로 이루어진 고려불화 전시와 함께 『고려불화대전』(국립중앙박물관, 2010) 도록이 발간되어 일본 소재 한국불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불교회화에 대한 연구 논문도 수량 면에서 앞 시기보다 뒤지지 않아 전체를 다 개관할 수 없지만 일본에서는 앞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불화 연구에 비해서는 다소 주춤해진 점

을 느낄 수 있다. 논문 편수도 줄어들었고 다방면에 걸친 연구보다는 환경변상도,<sup>23</sup> 우란분경변상도,<sup>24</sup> 수월관음도<sup>25</sup> 정도에 집중되었다. 그 가운데 이데 세이노스케(井手誠之輔)의 「高麗仏画の世界-東アジア美術における領分とその諸相(特輯 高麗仏画)」(『國華』110, 2005)는 고려불화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분석해본 의미 있는 논고이다.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활발한 연구 활동이 진행되어 앞 시기부터 이루어진 박은경의 일본소재 조선불화 연구<sup>26</sup>가 계속되었고 정우택은 새로이 찾은 고려 및 조선 전기 불화를 소개한 논문<sup>27</sup>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아울러 사경변상도,<sup>28</sup> 수록회도,<sup>29</sup> 나한도<sup>30</sup> 등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도 이어졌다. 국립박물관의 전시 도록에 실린 3편의 논고<sup>31</sup>도 참고가 될 만하다. 문명대 역시 최근까지 자료조사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불화와 더불어 새로 확인한 조선 전기 불화의 개별 작품에 대한 소개<sup>32</sup>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 4) 공예

공예는 모리야 미호(森谷美保)의 『李朝の工芸：日本民芸館所蔵』(そごう美術館, 2002)편에 민예관 소장 공예품을 소개하였고, 보고서 형태인 『法隆寺獻納宝物と正倉院宝物の源流に関する調査研究：韓国所在の彫刻・工芸作品を中心に』(科学研究費補助金; 基盤研究(A)(2))研究成果報告書,

23 川原由雄, 2003, 「浄土曼荼羅から迎攝図へ：高麗・李朝觀經變相圖の展開」『日韓両国に所在する韓国仏教美術の共同調査研究』, 奈良国立博物館.

24 服部良男, 2001, 「朝鮮李朝仏画(初期甘露幀)の世界(1,2,3,4) 大津市西教寺所蔵「孟蘭盆經説相」を読む-新出資料紹介」『アジア遊学』28・32, 勉誠出版; 2003, 「松阪市朝田寺所蔵「孟蘭盆經説相」を読む」『繪解き研究』17.

25 藤元裕二, 2011, 「浅草寺所蔵「水月觀音像」の美術史的位相-高麗仏画における中国絵画受容の一側面」『國華』117, 國華社; 2012, 「高麗仏画の振幅-養寿寺・泉屋博古館・浅草寺所蔵「水月觀音(楊柳觀音)像」を中心に」『人文』11, 学習院大学.

26 朴銀卿, 2000, 「일본소재 조선불화 유례 : 安國寺藏 天藏菩薩圖」『고고역사학지』16; 2005, 「일본소재 조선 16세기 수록회 불화, 甘露幀」『甘露』(下); 2010, 「西日本中國 四國地域の 조선 15~16세기 佛畫考」『석당논총』46, 동아대학교부설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7 鄭于澤, 2006, 「신출 고려시대 '비로자나설법도」,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향산 안휘준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1』, 사회평론; 2008, 「日本 四國地域 朝鮮朝 前期 佛畫 調査 研究」『東岳美術學』제9호, 東岳美術學會; 2008, 「朝鮮前期 金線描阿彌陀三尊圖 一例」『미술사연구』22호, 미술사연구회.

28 박상국, 2007, 「고려시대 사경의 특징과 의의」『사경변상도의 세계, 부처 그리고 마음』, 국립중앙박물관; 문선희, 2009, 「고려시대 「妙法蓮華經」, 寫經變相圖의 도상 연구」『미술사학연구』제264호, 한국미술사학회.

29 박정원, 2011, 「朝鮮前期 水陸會圖 研究」『미술사학연구』제270호, 한국미술사학회.

30 鄭于澤, 2003, 「나투스 인자의 모습-나한」『羅漢』, 국립춘천박물관; 신광희, 2012, 「高麗時代 羅漢圖의 특성」『미술사학연구』제275・276호, 한국미술사학회.

31 박혜원, 2010, 「고려불화, 제작에서 사용까지」『고려불화대전』, 국립중앙박물관; 정명희, 2010, 「儀式, 觀想, 幻影-기능적 측면에서 본 고려불화」, 같은 책; 송은석, 2010, 「고려불화의 書記」, 같은 책.

32 문명대, 2012, 「고려 관경변상도의 계승과 1435년 知恩寺 藏 觀經變相圖의 연구」『강좌미술사』38호, 한국미술사연구소; 2011, 「함마촉지인석가불 영산회도(靈山會圖)의 대두와 1587년작 운문(雲門)필 영산회도(日本 大阪 四天王寺 소장)의 의미」『강좌미술사』37호, 한국미술사연구소; 2012, 「조문(祖文)필 1591년작 朝田寺藏 國행수륙재(國行水陸齋) 감로도(甘露圖)의 특징」『강좌미술사』39호, 한국미술사연구소.

2004)에서 일본 소재의 한국 금속공예품에 대한 조사내용을 실고 있다. 나라문화재연구소(奈良文化財研究所)·아스카 자료관(飛鳥資料館)이 함께 펴낸 『新羅鐘·高麗鐘 拓本実測 図集成』(ビジネス教育出版社, 2004)는 일본 소재 통일신라, 고려 종의 탁본을 모은 자료집으로 지금은 사라진 한국 범종까지 게재되어 그 가치는 자못 크다.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펴낸 『高原日美子寄贈 高麗梵鐘』(2000)은 일본에서 기증된 고려 범종의 보고서이며 『하늘 꽃으로 내리는 깨달음의 소리』(直指寺 聖寶博物館, 2003)는 한국 범종의 탁본을 모은 도록으로서 직접 현지에서 찍은 일본 소재의 범종 탁본이 실려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된다. 2004년에 발간된 최응천·김연수의 『금속공예』(술출판사, 2004)는 금속공예에 관한 개설서이지만 일본 소재 범종의 최신 사진과 해설을 달아 참고가 된다. 이외에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펴낸 『일본 도교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 컬렉션 한국 문화재』(2005)에는 금속공예품을 제대로 된 사진과 해설을 통해 실고 있으며, 2006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도록 『천년을 이어온 빛 나전칠기』(고호출판사, 2006)에서 일본 소재 고려 및 조선 나전칠기에 대한 충실한 도판과 설명을 실음으로써 지금까지 나온 일본 소재 나전칠기 도록 가운데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일본 와세다 대학 쓰보우치 박사 기념 연극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2008)는 소장품 가운데 조선시대 후기의 가면을 수록한 보고서이다.

일본에서의 논문은 이시다 하지메(石田肇)의 「対馬の朝鮮鐘にかかわる新資料」(『梵鐘』 13, 2001)와 일본고종연구회(日本古鐘研究会)의 「無紀年銘鐘雜考と訪鐘記など：和鐘と朝鮮鐘について」(『梵鐘』 15, 2003)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고종연구회(日本古鐘研究会)가 주축이 되어 일본 소재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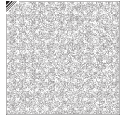
국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앞 시기에 이어 최응천이 「日本에 있는 韓國 梵鐘」(『高元日美子 寄贈 高麗梵鐘』(國立文化財研究所, 2000)과 「日本에 있는 韓國 梵鐘의 종합적 考察」(『東岳美術史學』 8호, 2007), 「日本에 있는 高麗 小鐘 고찰」(『東岳美術史學』 14호, 2013)에서 일본 소재 한국 범종의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이러한 일본 소재 한국 범종이 한국 범종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편년과 함께 발표하였다. 이 밖에도 최영숙의 「高麗時代 螺鈿漆器 研究」(『미술사연구』 15, 2001)와 가와다 사다무(河田貞)가 「천년을 이어온 빛 나전칠기」 도록에 집필한 「세계 속의 한국 나전칠기-고려와 조선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국립중앙박물관, 2006)와 정영환·전해운의 「고려나전칠기의 조형적 고찰: 해외유물을 중심으로」(『韓國工藝論叢』 11, 2008)는 이 시기 한국 나전칠기를 조명한 논고로서 주목된다.

## 5) 도자

도자 분야는 앞에서 언급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일본 도교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 컬렉션 한국 문화재』(2005)와 『일본 네이러쿠미술관 소장 한국 문화재』(2006), 『일본 사가현립규슈도자문화관 소장 한국 문화재』(2012)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같은 국립기관에서 조사된 제대로 된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 보고서로 자리잡게 된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가 조사되고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모범적인 보고서로서 좋은 참고가 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2000년 이후 신진 도자 전공자들에 의한 미술관·박물관 소장 자료의 소개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sup>33</sup> 그리고 한국 연구자들에 의한 자료 소개도 두드러지는

33 羽田輝子, 2001, 「高麗靑磁陶片の考察:和光大学陶片コレクション」『エスキス』, 和光大学人文学部・人間関係学部; 長谷川祥子, 2001, 「静嘉堂文庫美術館〈朝鮮陶磁:靑磁・粉靑・白磁・高麗茶碗〉」『陶説』 580, 日本陶磁協会; 李須恵, 2003, 「高麗美術館〈朝鮮の美術:白磁との出会い〉展」『陶説』 605(日本陶磁協会); 瀧朝子, 2005, 「大和文華館所蔵品展(自然から生まれた美 朝鮮陶磁)より」『陶説』 628, 日本陶磁協会; 南俊英, 2005, 「石川県立美術館特別陳列 朝鮮のやきもの」『茶道雑誌』 69, 河原書店; 松浦萌子, 2008, 「高麗美術館コレクション名品展(朝鮮の美術工芸:高麗靑磁を中心に)によせて」『陶説』 663, 日本陶磁協会; 片山まび, 2008,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テーマ展(天にささげる器:朝鮮時代の祭器)展によせて」『陶説』 663, 日本陶磁協会; 樋口とも子, 2009,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鈴木正男氏寄贈:浅川伯教が愛した韓國のやきもの)展に寄せて」『陶説』 676, 日本陶磁協会; 山下宗彦, 2011, 「茨城県陶芸美術館」筑波大学所蔵 石井コレクション 東洋陶磁の華一明・清・朝鮮・有田を中心に」に寄せて」『陶説』 698, 日本陶磁協会.



데, 김인규의 「佐賀県有田市所在の朝鮮系窯址についての考察：朝鮮前期白磁との影響関聯を中心に」(『鹿島美術財団年報』 23, 2005)와 정은진의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企画展〈高麗時代の水注〉に寄せて」(『陶説』 687, 2010),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朝鮮王朝の青花磁器について」(『茶道雑誌』 76, 2012),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白磁を飾る青：朝鮮時代の青花〉に寄せて朝鮮王朝の青花磁器の特質：前期における王室儀礼との関連を中心に」(『陶説』 713, 2012) 등이 확인된다.

국내에서는 일본 소재 한국 도자를 다룬 논고로 방병선의 「일본 高麗美術館 소장 19세기 조선백자 연구」(『미술사학연구』 253호, 2007)와 한성욱의 「日本 京都 出土 高麗靑瓷の現況과 性格」(『한국중세사연구』 25, 2008) 정도뿐이지만 김인규에 의해 일본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의 제작시기를 검토한 「일본 출토 고려청자의 제작시기에 대한 연구-카마쿠라(鎌倉) 및 큐슈(九州) 지역을 중심으로-」(『한국문화』 59, 2012)와 같은 일본 출토 고려청자의 연구가 계속해서 발표되었다. 가타야마 마비(片山まび)는 「對馬・北部九州地域と高麗陶磁」(『石當論叢』, 2008)에서 쓰시마와 북큐슈(北九州) 지역 고려도자를 고찰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오사가 동양도자미술관의 백자청화용준(白磁靑畫龍樽)의 특징과 제작시기를 고찰한 최건의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소장 李秉昌컬렉션〈白磁靑畫龍樽〉에 관하여」(『동양미술사학』 14, 2013)가 주목되는데, 개별의 도자를 깊이 있게 분석한 논고이다.

## 맺음말

지금까지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연구 현황을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매우 다양한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일제 강점기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분야별로 개설서가 간행되기 시작하였으나 깊이 있는 논고가 발표되지 못하였던 한국 미술사 연구의 여명기였다.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에 대한 연구가 몽유도원도, 헤허 필 고려 불화를 제외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점은 일제 강점기라는 시기적 상황 아래 한국 본토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연구하기도 양이 워낙 방대하고 주어진 역량이 부족하여 일본 내 한국 문화재까지 눈을 돌리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파악된다.

1945년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는 해방 이후 일본과 국내 모두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개설서가 증대되면서, 자료 보고 형식의 논고가 지속적으로 발표된 시기였다. 분야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불교회화에서 두드러진 성과가 나왔다. 조각은 일본 학자들에 의한 한국 불상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일반회화 분야에서 왕성한 저술 활동과 논문의 양에서 일본, 국내 모두 증가된 점이 확인된다. 불교회화는 1960년대 말부터 일본 소재의 한국 불화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함으로써 다른 어느 분야보다 많은 저술과 논문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자료 소개가 증가하였다. 공예의 경우 발표된 논문 수에 비해 조사 연구자가 극히 적은 현상이 보이며 일본 학자인 츠보이 료헤이(坪井良平)의 활동이 돋보였다. 도자 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 못지않게 도자 관련 저서가 증가된 점이 주목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국내에서 소장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히 개시되고 신 자료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개별 논고가 많아진 시기이다. 일본의 경우 소수 연구자들의 지속적 활동이 이어지며 국내의 경우 기존학자에 이어 독일 유학생들에 의한 연구 조사가 실시되었다. 나아가 조사 지역 및 연구범위가 확대되어 연구자의 양적 증가가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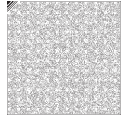
아울러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의 대여 전시가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 새로운 관심이 더욱 집중되기도 하였다. 조각 분야의 경우 공동 조사 연구의 시행과 그에 관련된 보고서 형식의 논문이 증가되었고 쓰시마 관련 한국 불상의 지속적 소개가 이루어졌다. 회화에서는 안건 연구가 지속된 점과 새로이 통신사 관련 연구가 증가된 점을 볼 수 있다. 불교회화 분야에서는 국내에서의 일본 소재 한국 불화 전시와 불교회화 조사 보고서가 증가된 시기로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 많

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어 일본학자 31편, 일본 내의 한국학자 논문 17편, 국내 발표 논문 38편 등에 이른다. 공예에 있어서는 일본 소재 한국 범종의 연구가 두드러짐이 확인된다. 도자는 무역 도자 속에서 한국 도자의 연구가 확산되고 일본 박물관이나 미술관 소장의 한국 도자 소개가 증가되었다. 또한 국가기관(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의 미흡하지만 처음으로 조사와 보고서가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초부터 현재까지는 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심화된 연구를 바탕으로 개별 작품에 대한 미시적 접근이 점차 이루어진 시기이다. 미술사학파가 있는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논문의 주제로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를 다룬 논문이 증가되었고 연구가 확대되기 시작하여 여러 방면에 걸친 연구 인력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일반회화, 불교회화, 소수의 불교공예 정도를 제외하고 연구 분야 간 차별화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우선 일반회화는 연구 성과를 집약한 여러 편의 저술과 한일 회화 교류·교섭에 관련된 논문이 증가되고 통신사 관련 연구가 지속되었다. 불교회화는 계속

발견되는 작품들을 신 자료로 소개하고 연구논고로서 전문 학술지에 게재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일본 소재 한국 불교회화와 사경의 대규모 국내 전시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공예 분야에서는 일본 측 연구자가 쇠퇴하고 국내에서 일본 소재 한국 범종, 사리기, 나전칠기 등의 세부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조각 분야의 경우 일본 소재 한국 조각에 대한 극히 적은 수의 논고뿐이며 일본 쪽에서도 성과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도자 분야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한 본격적인 한국 문화재 보고서가 간행되고 일본에서 2000년 이후 신진 도자 전공자들에 의한 미술관·박물관 소장 도자 자료의 소개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끝으로 지금까지 분야별로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의 연구 현황을 파악한 성과는 간혹 있지만 그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 의의를 두고 싶지만 누락된 연구 성과와 충실한 주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집필자들의 너그러운 양해와 질정을 바란다.



##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일본 사가현립규슈도자문화관 소장 한국 문화재』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해외 전적 문화재 조사 목록-일본 오타니 대학 소장 고려대장경-』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일본 와세다대학 쓰보우치박사기념 연극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일본 존경각문고 소장 한국본』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일본 네이라쿠미술관 소장 한국 문화재』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일본 천리대학 도서관 소장 한국본』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 컬렉션 한국 문화재』
- 國立文化財研究所, 1993, 『海外所在 韓國文化財 目錄』
- 韓國國際交流財團, 1998, 『日本所藏 韓國文化財』 5 (出光美術館, 松岡美術館, 根津美術館, 東京大學教養學部美術博物館, MOA美術館, 五島美術館, 靜嘉堂文庫美術館, 東京藝術大學美術館)
- 韓國國際交流財團, 1997, 『日本所藏 韓國文化財』 4 (天理大學天理圖書館, 天理參考館)
- 韓國國際交流財團, 1997, 『日本所藏 韓國文化財』 3 (高麗美術館, 京都國立博物館, 京都大學文學部博物館, 奈良國立博物館, 寧樂美術館, 大阪市立美術館)
- 韓國國際交流財團, 1995, 『日本所藏 韓國文化財』 2 (東京國立博物館,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大和文華館)
- 韓國國際交流財團, 1993, 『日本所藏 韓國文化財』 1 (民藝館)
- 朴銀卿, 2008, 『조선전기 불화연구』, 시공아트
- 박은경 · 정은우, 2008, 『西日本 지역 한국의 불상과 불화』, 민족문화
- 姜健榮, 1999, 『梵鐘をたずねて-新羅·高麗·李朝の鐘』, アジアニュースセンター
- 菊竹淳一 · 鄭于沢, 2000, 『高麗時代の仏画』, 時空社
- 菊竹淳一 · 吉田宏志, 1981, 『高麗仏画』, 朝日新聞社
- 板倉聖哲 · 洪善杓 · 鄭于沢, 2008, 『朝鮮王朝の絵画と日本:宗達·大雅·若冲も学んだ隣国の美』, 読売新聞大阪本社
- 坪井良平, 1974, 『朝鮮鐘』, 角川書店
- 河田貞 · 高橋隆博, 1986, 『高麗李朝の螺鈿』, 毎日新聞社
- 金英愛, 1992, 『在日 韓國佛像의 研究現況 - 일본속의 한국불교미술』 『講座美術史』 4, 韓國美術史研究所
- 김인규, 2012, 『일본 출토 고려청자의 제작시기에 대한 연구 - 카마쿠라(鎌倉) 및 큐슈(九州)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59,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 문영대, 1992, 『재일 한국불화 조사연구』 『강좌미술사』 4, 한국미술사연구소
- 박도화, 1992, 『재일 한국불화의 현황과 연구과제』 『강좌미술사』 4, 한국미술사연구소
- 朴銀卿, 2007, 『조선전기 불화의 연구동향과 과제』 『불교미술사학』 5호, 불교미술사학회
- 안취준, 1974, 『안견과 그의 화풍-‘몽유도원도’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38, 진단학회
- 鄭于沢, 1990, 『日本에 있어서의 韓國 佛教美術의 研究傾向 - 佛教繪畫를 중심으로』 『東洋學簡報』 10호,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 千惠鳳, 1984, 『대마학술조사보고(1984.6.21.~8.10.) : 대마의(對馬) 한국전적』 『日本學』 4, 東國大學校 日本學研究所
- 최응천, 2013, 『日本에 있는 高麗 小鐘 고찰』 『東岳美術史學』 14호, 東岳美術史學會
- 최응천, 2007, 『日本에 있는 韓國 梵鐘의 종합적 考察』 『東岳美術史學』 8호, 東岳美術史學會
- 菊竹淳一, 1974, 『對馬·壹岐의 朝鮮系彫刻』 『佛教藝術』 95, 毎日新聞社
- 馬場久幸, 2009, 『大谷大学所藏高麗版大藏經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58, 日本印度學仏敎學會
- 西谷正, 1992, 『日本出土の朝鮮陶磁 : 高麗青磁を中心として』 『東洋陶磁』 22, 東洋陶磁学会
- 長谷部樂爾, 1982, 『小倉コレクションの高麗·李朝陶磁』 『東京国立博物館研究誌』 373, 東京国立博物館
- 흥선표, 2013, 『日本에 있는 朝鮮 繪畫의 전래 및 존재 유형과 사례』 『동악미술사학』 14, 동악미술사학회



# Research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in Japan

**Choi Eung-chon**

Prof., Dept. of Art History, Dongguk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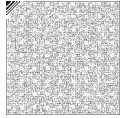
## Abstract

After independence, more introductory books on Korean culture were published in both Korea and Japan, along with various papers briefly presenting relevant materials. There ar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research field, however, a considerable number of articles about Buddhist paintings were published. Research on Korean sculpture was quite active among Japanese scholars. And numerous articles and publications on Korean painting were also presented in both Korea and Japan. Publications on Korean ceramics were increased as much as in other fields.

From the late 1980's through late 1990's, research on Korean cultural properties continued to increase, as many young scholars began to conduct research very actively in Korea, producing many articles to introduce new materials. A small number of Japanese scholars also continued to research Korean cultural properties. The overall number of Korean researchers also increased, as existing scholars were joined by students who went to Japan to study and conduct research, thereby helping to significantly expand the area and topics of research. In this period, the exchange exhibi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were increased. Also the substantial research reports was began to be published by the national institution.

From the early 2000 through present, in all fields, research has progressed and improved since the late 1990's, with many individuals pursuing a microscopic approach to their artifacts and works. More graduate students have been focusing on Korean cultural properties in Japan as the subject of their master's or doctoral thesis in art history, and overall number of researchers in various areas has increased. In the field of Buddhist painting, painting, and Buddhist crafts some important books and articles have been published. However, research achievements have been somewhat uneven. In the area of ceramics, several significant examples of substantial research reports were published by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se publications are outstanding references that illustrate the future direction of research on Korean cultural properties in Japan.

**Key Words** Research on Korean Cultural Property in Japan, History of Researching Cultural Properties, History of Korean art History, Research Overview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Achievements of Korean Cultural Properties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7. No. 3